

사회운동조직간 연결망*

권태환** · 이재열***

이 논문은 신사회운동이 한국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밝히려고 하는 시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운동조직간 연대활동을 ‘포괄적 연대’와 ‘강한 연대’로 구분한 후, 연결망분석의 기법을 활용해 조직간 연대의 양상과 결정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신사회운동조직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평가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사회운동조직간에는 일정한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1987년 이후에 설립된 신생조직으로서 중앙에서 활동하는 상근자규모가 큰 조직이 연대활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신·구사회운동의 구분이 그다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사회운동조직간 연결망에서 중심적 조직과 주변적 조직간의 비대칭적인 결합이 강하게 나타나며, 정부기간과 언론이 사회운동조직에 가장 중요한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신사회운동은 짧은 시간동안 급속히 성장해 왔지만 아직은 전통적 사회운동과의 명백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이 연구를 보여 준다.

*본 연구는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과학분야 중점영역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겸 사회과학연구원장. 주요관심분야는 인구학, 환경사회학, 도시사회학 등이다. 주요 저서로 『인구의 이해』(1990), 『한국인의 생명표』(1990), 『한국의 가족과 가족유형』(1993) 등이 있다(연락처: 02-880-6404, E-mail: thkwon@prone.snu.ac.kr).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주요 관심분야는 경제사회학, 조직사회학, 이론구성 등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경제의 사회학』(1996), 『90년대 한국의 노동조합』(1996), “민주주의, 사회적 자본, 사회적 신뢰”(1998) 등이 있다(연락처: 02-880-6408, E-mail: jyee@plaza.snu.ac.kr).

1. 서론

1) 민주화와 신사회운동의 대두

한국사회에서 민주화가 진전된 결과 사회운동의 지평은 널리 확대되었다.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강력한 국가주도로 이루어진 근대화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철저한 분절과 분산적 동원의 대상이 되었다. 국가는 시민사회내의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의 형성을 최대한 억압한 반면, 조합주의적 방식으로 친정부적인 사회단체들을 조직하고 관변단체로 육성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반면에 이에 대항하는 시민사회 내 다양한 세력들은 주로 권위주의적 정권에 대항하는 학생운동과 다양한 민주화 운동, 그리고 자본주의적 발전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운동이 그 핵심을 이루었다고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사회운동조직의 목적으로 본다면, 90년대 이전의 운동은 대개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거나, 권력의 행사방식에 영향을 미쳐서 사회내의 정치적·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권력지향적인 운동이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으로 인해 시민사회는 오랜 결빙상태에서 풀려나 내적 역동성과 자발성을 찾아나가게 되었고, 그 결과 다양한 시민운동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었다. 시민사회의 해방은 사회운동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신사회운동이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이해된다. 전통적인 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은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신사회운동은 권력지향적이라기보다는 문화혁신적이며, 특정 집단이나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기보다는 공적인 가치와 생활양식의 변화를 지향하며, 형식적이고 위계적인 조직체계 대신 느슨한 네트워크와 자발적 참여를 기축원리로 한다는 것이다(Cohen and Arato, 1992). 서구에서 논의된 신사회운동론은 신사회운동의 지평이 근대성을 전제로 하고 근대성이 자리잡은 사회에서 근대성이 배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사회운동과는 일정한 단절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편다(McAdam, McCarthy and Zald, 1996). 조직생태학의 관점에서도 시대적 상황의 변화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운동조직의 형태를 요구할 것이라는

가설을 생각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권위주의체제하에서의 체제도전적 사회운동과는 무관하게, 새로운 이념과 조직형태를 갖추고 새로운 성원들을 충원한, 말 그대로 “새로운” 사회운동이 출현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급속한 근대화를 경험한 사회에서는 탈현대적 이슈들과 근대성의 이슈들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1968년의 학생운동 이후 30여년의 역사를 지난 서구의 신사회운동이 전개되어온 과정과 특징이 한국사회에서 일대일로 대응될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존재한다. 한국의 신사회운동은 한국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신사회운동의 성격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적 논의의 결과들을 토대로 신사회운동의 한국적 특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사회운동은 과연 전통적인 사회운동과 별개의 운동의 논리를 가지고 새롭게 탄생한 것인가 아니면 구사회운동과의 연장선 상에서 서로 밀접하게 접목되어 있는 사회운동조직의 다면적 특성의 한 차원인가 하는 것은 흥미로운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사회운동조직들간의 연결망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흔히 신사회운동을 조직의 특성으로 보면 네트워크의 네트워크(network of networks)라고 한다. 그 이유는 신사회운동이 기존의 사회운동처럼 위계화된 거대조직을 갖추기 보다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참여자의 자발적 헌신에 의존하는 유연한 조직특성을 갖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 신사회운동과 연결망 분석(network analysis)

지금까지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는 개별 행위자에 준하는 내적인 일관성과 통합성을 갖춘 사회운동조직들이 운동의 주체로 설정되고, 이들의 자원동원능력이나 이념적 성향, 그리고 전략 등이 사회운동의 양상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연결망 분석은 사회적 현상을 한 행위자나 조직을 단위로 분석하기 보다는 이들간에 맺어지는 관계로부터 파생되는 출현적 속성(emergent property)을 강조하고, 그에 따라 관계의 양상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행위자중심, 혹은 변수중심의 접근법과는 구별된다. 특히 많은 사회학자들이 주지하는 바와 같이 거시적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방법과 미시적 과정에 대한 이해방법 사이에는 매우 힘든 간격이 존재해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바, 연결망분석은 거시적 사회현상과 미시적 사회현상을

연계하여 다양한 분석수준간의 연계구조를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유용한 틀로 활용할 수 있다.

기존의 사회과학적 연구들은 변수중심의 분석틀을 유지해왔다. 변수중심의 접근법은 개별 행위자들이 어떤 의견을 지니는지, 혹은 어떤 행위를 하는지, 또는 그들의 의견이나 행위가 전체 사회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사회구조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지 등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개별행위자들의 제반 속성 — 예를 들자면 성, 수입, 교육수준, 종교 등 — 또는 이 속성들의 전체 분포를 살피고, 이 속성들이 설명대상과 맺는 상관관계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략으로 한다. 그러나 사회연결망분석은 행위자의 정체성이나 의견, 행위, 그리고 그들의 기본적 속성까지도 개별행위자들간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기본적 가정을 가지고 있다.

사회운동조직간의 연결망을 연구한다는 것은 기존의 조직단위연구와는 구별되는 다양한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중 몇가지만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운동, 특히 신사회운동은 구사회운동과는 달리 구성원의 집단적 이익을 달성하려 하기보다는 집합적 정체성(identity)과 유대감을 확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이념의 확산을 추구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조직간, 그리고 행위자간의 연대의 구조를 밝히는 것은 신사회운동의 과정을 이해하는 첨경이 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사회운동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뒤이은 정치적 민주화라는 근대적 사회로의 이행과정을 압축적으로 경험하면서, 동시에 여성해방이나 환경보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관심 등과 같은 탈근대적인 이슈들이 혼재된 상태에서 성장해 왔다는 점에서 다소 이질적인 목적과 조직운영방식이 상호 밀접히 결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달리 말하면 권위주의체제에 대한 저항과정에서 성장한 인권운동 조직들과, 노사관계의 비대칭성과 국가의 억압에 대한 저항으로 출발한 노동운동 조직, 급속한 산업화의 결과에 대한 성찰로부터 출발한 환경운동조직, 그리고 가부장적인 권리구조하에서 남녀간의 평등을 성취하고자 하는 여성운동조직 등이 상호 밀접한 환경적 요인들을 공유하며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들간에는 복잡한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나 교류가 이루어져 왔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사회운동조직에 대한 연결망분석은 다양한 영역의 운동조직들간의 상호연계구조

를 파악할 수 있어서, 사전적으로 개념수준에서 분류된 운동조직의 유형들을 실제 활동에 기반해 귀납적으로 유형화하고 개념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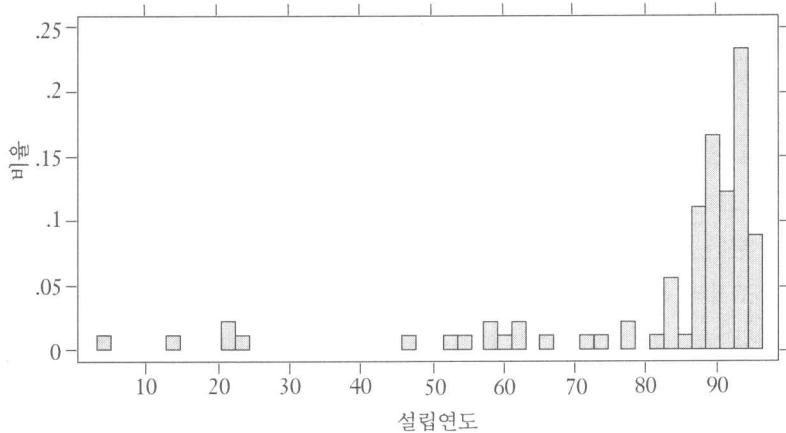
셋째, 사회운동조직을 개별조직의 특성이 아닌 조직들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파악하게 되면, 개별 조직의 특성이 아닌 “연대활동” 자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즉, 조직들간의 연대활동이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더 이상 조직의 특성만이 아니라 조직들간의 관계적 유사성이나 상이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결국 양자관계(dyad)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3) 조사대상의 선정과 조사방법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운동조직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객관적 평판법과 주관적 평판법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첫째는 객관적인 평판법을 이용하기 위해 1992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의 신문기사들을 검색하여 다양한 활동이 주요 일간신문에 보도된 횟수를 파악하였다. 신문기사에서 인용된 빈도가 높은 순으로 모두 144개의 후보단체를 선정하였다. 이 단체들을 다시 환경, 여성, 복지, 인권, 구사회운동 등의 5개 영역으로 나눈 후, 각 영역별로 그 분야의 사회운동단체의 활동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는 7명의 전문가들로 평가진을 구성하여 이들이 각 단체에 대해 주관적인 평판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¹⁾ 조사대상조직을 선정할 경우에 영역에 대해서는 미리 구분을 하였으나, 협의체와 단일운동단체,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구분은 미리 하지 않았다.

객관적 평판법으로 추출된 144개 후보단체에서 주관적 평판법에 의해 최종적으로 선별된 것은 100개의 운동조직이었다. 이를 조직에 대해서는 1998년 1월 중에 두 가지의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운동조직의 대표나 실무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으로서 각 운동조직의 내부구성과 활

1) 평가를 맡은 전문가들은 해당 분야의 다양한 운동단체들과 오랜 기간 직접 접촉을 했거나, 이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연구자, 신문기자, 연구소 종사자, 실제 활동가 등을 중심으로 하여 선정하였다.



〈그림 1〉 사회운동조직의 설립연도별 분포

동내용, 그리고 조직간 연결망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면접원을 통한 조직내 주요 이슈들에 대한 심층적 면접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조직내 실무책임자의 이동 경력과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가 병행되었다.²⁾ 전체 100개의 대상조직중 실제로 연결망에 대한 조사자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90개 조직이었다. 조사의 결과는 대상 조직들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조사대상이 된 조직 90개 중 모두 65개는 1987년 이후에 창설된 반면에, 20개는 해방 후 1987년 사이에, 그리고 5개만이 1945년 이전에 창설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회운동조직들이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인 1987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설립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운동단체의 활동영역에 따라 보면 여성운동단체가 20개, 환경단체가 14개, 인권 및 복지단체가 40개, 구사회운동단체가 16개였으며, 조직의 수준별로는 협의체가 27개, 단일운동단체가 63개였다.

한편, 전체 90개 단체중 전국에 지부를 두고 전국을 포괄하는 단체는 모두 50개인 반면, 중앙에서만 활동하는 조직이 18개, 서울을 제외한 기타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21개였다. 현재의 회원수에 따르면, 백명 미만이 6개, 백명 이상 천명 미만이 29개, 천명 이상 만명 이하가 21개, 만명 이상 십만명 이하가 13개, 십만명 이상

2)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은 서울대학교, 동국대학교, 연세대학교의 대학원에서 사회운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백만명 이하가 6개, 백만명 이상인 경우가 3개였다. 상근자의 규모별로는 5인 이하가 48개, 6-10인이 14개, 11-20인이 10개, 21인 이상이 15개로서 평균 상근자수는 12인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근자규모에 비해 참여하는 회원수가 많다는 점에서 조직의 위계화전략 대신 참여폭의 확대를 통한 운동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전략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연대활동상 중심적인 사회운동조직과 특성

1) 사회운동조직간 연대활동의 정의

이 연구에서는 사회운동조직간의 연대를 두 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포괄적 연대”란 공동성명의 발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캠페인, 법개정 청원, 서명 등과 같은 다양한 연대활동에서 인적 및 물적인 교류나 정보교환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반면에 “강한 연대”는 포괄적 연대중에 정보교환에 머무는 소극적 연대를 제외한 인적 및 물적 연대에 한정하였다. 그러므로 강한 연대는 포괄적 연대의 한 부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포괄적 연대에서 강한 연대를 제외한 정보교환을 중심으로 하는 잔여범주를 “약한 연대”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궁극적으로 포괄적 연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그러나 분석의 성격에 비추어 조직간 연대가 지속적이고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진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강한 연대”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조직간 연대활동에 대한 분석은 “강한 연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약한 연대”를 포함하는 포괄적 연대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2) 연대활동상의 중심조직

사회연결망에서 중심성은 중요성과 연관되어 있다. 중요한 행위자란 현저한 (prominent) 위치에 있는 행위자이다. 모레노(Moreno)의 개념으로 돌아가 본다면 스타에 해당하는 사람이 중심성이 높은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중심성을 측정하는데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이 글에서는 세 가지 개념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이다. 매개중심성이 높은 조직은 타조직들의 연대활동을 촉진시켜주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매개중심성은 다음의 식과 같이 표현된다.

$$C_b(n_i) = \sum_{j < k} g_{jk}(n_i) / g_{jk}$$

달리 설명하면, i번째 조직의 매개중심성은 i를 제외한 나머지 조직들 j와 k를 연결하는 최단거리(geodesics) 안에 i가 존재해서 i를 거치지 않고는 소통이 되지 않는 조직간 쌍들의 합을 의미한다. 만일 j와 k를 연결하는 최단거리가 i 이외의 다른 경로가 있을 경우에는 전체 최단거리수들 중의 하나($1/g_{jk}$)로 가중하여 처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매개중심성은 해당 조직 i가 얼마나 타 조직들을 매개해주는 브로커, 혹은 다리(bridge)의 역할을 하느냐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해준다.

두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수신중심성(in-degree centrality)이다. 수신중심성이란 모두 n개의 조직이 있을 때, 타조직으로부터 연대활동의 대상으로 선택된 빈도를 의미한다.

$$C_i = \sum_i z_{ij}, \quad i \neq j$$

따라서 수신중심성이 높은 조직은 그만큼 타조직으로부터 활동의 대상으로 지목받는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높은 위신(prestige) 혹은 지위(status)를 가진 조직이다.

세 번째 발신중심성(out-degree centrality)은 각 조직이 외부에 연대활동을 의뢰한 빈도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될 수 있다.

$$C_o = \sum_j z_{ij}, \quad i \neq j$$

발신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조직간 연대활동을 촉발시키는데 얼마나 적극적인가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각 사회운동조직들간의 연대를 정보교환과 인적/물적교류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연대”와, 그중에 인적/물적 교류만을 골라낸 “강한 연대”로 구분한 후, 각각의 연대활동에서 각 사회조직들이 점하는 중요성을 세가지의 중심성지수로 계산한

〈표 1〉 중심성지표별 상위 10대 중심조직

순위	포괄적 연대				
	매개중심성(C_b)	수신중심성(C_i)	발신중심성(C_o)		
1	참여연대	1711	민주노총	23	녹색소비자연대 29
2	녹색소비자연대	980	참여연대	23	민가협 15
3	녹색교통운동	871	한국여성단체연합	20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13
4	한국노총	733	경실련	20	인권운동사랑방 11
5	한국여성단체연합	641	전국연합	15	참여연대 10
6	녹색연합	583	민변	14	한국노총 10
7	전국연합	500	녹색연합	11	민교협 10
8	부산YWCA	434	민가협	9	전국연합 10
9	민주노총	410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8	건강한사회를위한의사회 9
10	민가협	355	한국여성민우회	8	녹색연합 8

순위	강한 연대				
	매개중심성(C_b)	수신중심성(C_i)	발신중심성(C_o)		
1	민주노총	478	민주노총	14	녹색소비자연대 13
2	참여연대	454	경실련	14	민가협 11
3	전국연합	330	참여연대	13	인권운동사랑방 9
4	한국여성단체연합	243	한국여성단체연합	11	민교협 8
5	인권운동사랑방	141	전국연합	8	그린피밀리운동연합 8
6	불교환경교육원	136	민변	8	참여연대 7
7	의보통합연대회의	134	녹색연합	5	의보통합연대회의 6
8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128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5	전국연합 6
9	참교육시민모임	116	민예총	5	민주노총 6
10	민교협	115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5	녹색교통운동 5

후, 그중에서 상위 10개의 조직들만을 골라 제시한 것이 〈표 1〉에 나타나 있다. 먼저 포괄적 연대활동에서 브로커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진 조직은 〈참여연대〉로서 여타 조직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중심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강한 연대활동에서는 〈민주노총〉의 브로커 역할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는 〈참여연대〉가 정보의 교환을 매개하는 브로커로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면, 〈민주노총〉은 사회운동조직간의 직접적인 인적/물적 교류에서 브로커 역할이 보다 강했다는 것을

〈표 2〉 중심성지수들간의 서열상관계수 (Spearman's rho)

		포괄적 연대		강한 연대	
		수신중심성	발신중심성	매개중심성	수신중심성
포괄적연대	매개중심성	.738***	.748***	.646***	.714***
	수신중심성		.476***		.867***
	발신중심성				.669***
강한 연대	매개중심성	.491***	.522***		.598***
	수신중심성		.475***		.198

***: p < 0.001

보여준다.

운동조직간의 연계에서 드러나는 수신중심성을 보면, 포괄적 연대에서나 강한 연대 모두에서 큰 순위의 변동이 없다. (양자간의 서열상관계수는 〈표 2〉에서 보면 .867에 달한다.) 이는 운동조직 내에서 스타의 위치를 차지하는 조직이 〈민주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여단협〉, 〈전국연합〉, 〈민변〉, 〈녹색연합〉 등의 순이며 상당히 안정적인 형태라는 것을 보여준다.

발신중심성의 순위도 포괄적 연대와 강한연대활동 모두에서 커다란 변동은 없어 보인다. 양자간의 서열상관계수는 .669로서 수신중심성에서와 같은 높은 연관성은 없지만, 대체로 유사한 순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녹색소비자연대〉와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전국연합〉 등이 매우 활발한 연대추구활동을 하고 있다.

3) 중심성의 결정요인

연대활동상에서 중심적인 조직은 어떤 특성을 지닌 조직들일까? 다음의 〈표 3〉은 사회운동조직의 특성별로 중심성 지수들의 평균을 비교해 본 것이다. 이 표에서 먼저 드러나는 특징은 수신중심성과 발신중심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서로 반대라는 점이다. 단체수준별로는 연합체나 협의체가 단독조직보다 수신중심성이 높아서 이들이 타조직으로부터 연대활동을 요청받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대로 단독조직에서는 타조직에 대한 연대활동요청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사회운동

〈표 3〉 사회운동조직의 특성별로 본 중심성지수들

단체특성	포괄적 연대			강한연대(인적/물적 교류)			
	매개 중심성	수신 중심성	발신 중심성	매개 중심성	수신 중심성	발신 중심성	
단체수준	1. 연합/협의체	128.5	5.4	3.2	51.3	4.2	2.4
	2. 단독조직	121.0	3.0	4.0	23.3	2.3	2.7
	전체평균	123.3	3.8	3.8	31.7	3.0	2.7
	F값(ANOVA)	.02	4.72*	.73	2.07	4.30*	.53
	1. 여성운동	95.8	3.7	2.6	14.9	1.8	1.0
단체유형	2. 환경운동	151.9	2.6	5.3	24.3	1.5	3.0
	3. 인권운동	57.4	3.6	4.1	13.9	1.5	1.9
	4. 사회복지	147.0	3.9	3.2	32.3	2.2	1.9
	5. 구사회운동	168.7	4.8	4.3	77.4	2.8	2.5
	전체평균	123.3	3.8	2.8	31.7	2.0	2.0
활동영역	F값(ANOVA)	.54	.39	1.08	1.61	.55	1.46
	1. 전국포괄	131.5	4.9	4.4	38.4	2.4	2.1
	2. 중앙	184.4	3.8	3.2	40.8	2.1	1.8
	3. 광역지방	65.5	1.3	2.6	9.2	1.0	1.8
	4. 기초지역	39.1	1.0	2.8	9.1	0.7	1.6
	전체평균	123.3	3.8	3.8	31.7	2.0	2.0
	F값(ANOVA)	.88	3.04*	1.02	.68	1.45	.16

(주)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타 조직이 다른 조직들에 도달하기 위해 해당 조직을 거쳐야 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수신중심성(in-degree centrality)은 해당조직이 타조직들로부터 요청받은 연대의 횟수를, 발신중심성(out-degree centrality)은 해당조직이 타조직들에게 요청한 연대의 횟수를 의미한다. I은 정보교환과 인적/물적교류를 전부 포함하는 연대활동을 의미하며, II는 인적/물적교류에만 한정한 연대활동을 의미한다.

*: $p < .05$

조직의 활동영역별로 보면 전국을 포괄하는 조직이나 중앙에서 활동하는 조직들이 지방이나 기초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에 비해 연대활동을 요청받는 비중이 높다.

브로커의 역할을 측정하는 매개중심성을 기준으로 하면, 단체의 성격이 연합체

〈표 4〉 사회운동조직의 중심성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포괄적 연대			강한 연대		
	매개중심성	수신중심성	발신중심성	매개중심성	수신중심성	발신중심성
역사	-5.20**	-0.10**	-0.81*	-1.34*	-0.06**	-0.04*
ln(규모)	-7.55	-0.20	-0.24	-0.69	-0.06	-0.10
ln(상근자)	123.75***	2.21***	1.36*	18.60	1.23***	0.52
전국/중앙	100.40	3.66**	1.88	26.99	1.48*	0.66
상수학	-57.17	-0.42	2.82	-15.02	-0.26	2.02
R-square	.080	.274	.138	.114	.215	.080
사례수	75	75	75	75	75	75

*: p < .05; **: p < .01; ***: p < .001

나 협의체인지, 혹은 단독조직인지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단체유형에 따라서는 구사회운동조직, 환경운동조직, 사회복지운동조직 등의 브로커역할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활동영역별로 보면 역시 지역에 기반한 조직보다는 전국을 포괄하는 중앙조직들의 브로커역할이 두드러진다.

다양한 중심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조직의 연령, 조직의 규모(회원수), 상근자의 수, 조직의 활동영역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행한 결과는 사회운동조직의 수신중심성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수신중심성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오래된 운동조직보다는 최근에 설립된 운동조직들이 연대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행하며, 회원수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국을 무대로 하거나 중앙에서 활동하는 조직의 수신중심성이 지방조직에 비해 유의미하게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괄적 연대에서는 동일한 요인들이 조직의 매개중심성이나 발신중심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운동조직의 유형, 즉 환경이나 여성운동, 혹은 기타 운동의 영역이 가지는 고유한 효과는 없다. 달리 말하면 운동조직의 중심성은 신사회운동조직이나 구사회운동조직을 불문하고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운동조직의 중심성을 결정하는 것이 회원수나 운동의 영역이 아니라 조직이 가진 자원처리능력, 즉 상근자의 숫자와 비례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3. 전체 사회운동조직간 연대의 양상과 특성

1) 블록모델링을 통한 연대관계의 요약

전체 사회운동조직간의 연결망이 맷는 양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강한 연대'에 일차적으로 주목하였다. 한국의 사회운동조직간의 연대활동을 통해 우리는 전체적 양상을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다양한 조직들 중에서 조직간 연대의 분야에서 상대적 위치가 유사한 조직들을 골라낼 필요가 있다. 조직간 연대활동상의 유사성, 즉 구조적 등위성에 따라 몇 개의 블록으로 요약하고, 각각의 블록들간, 그리고 블록내 연대활동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전체 사회운동조직들간의 관계를 요약하기 위한 블록 모델링 (block modeling)의 한 방법으로 이 연구에서는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를 이용하였다. CONCOR란 연결망 상의 조직들의 위치를 판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조직들을 i 행과 j 열에 따라 범주내의 조직들간의 상관관계는 +1로, 범주간의 상관관계는 -1이 되도록 범주들을 세분화시키는 방법이다 (Wasserman and Faust, 1994: 376-380). 범주의 구분은 처음에는 두 블록으로, 그리고 각각의 블록을 다시 두 개의 하위블록으로 나누는 방법을 반복하여, 가장 동질적인 세분화된 범주가 나타날때까지 계속하게 된다. 이 방법은 같은 범주 안에 속한 조직들간의 상대적인 구조적 등위성을, 판별할 수 있게 해 준다. 조직 i 와 j 가 구조적으로 등위에 있다는 것은 모든 조직 ($k = 1, 2, \dots, g$ 이고 $k \neq i, j$)과의 관계에서 i 가 k 와 맷는 관계가 j 가 k 와 맷는 관계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때 세분화의 수준과 하위범주내 등위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전체 연결망에 속한 조직의 수와 내부 동질성의 정도를 이론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CONCOR를 사용해 전체 90개의 사회운동조직을 다음의 <표 5>과 같이 13개 블록을 나눌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90×90 의 매트릭스는 13×13 의 매트릭스로 요약되었다. 90개 조직간 관계를 재분류하여 13개 블록으로 나눈 원자료는 <부표 1>에 실려 있고, 13개 하위블록간의 관계의 밀도는 <표 6>에 실려 있다. <표 5>에서

〈표 5〉 CONCOR를 이용한 사회운동조직의 분류(구조적 등위성)

블록	중심단체	소속단체
1. 환경I	녹색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대한YWCA연합회, 수원환경운동센터, 그린훼미리운동연합, 환경과 공해 연구회, 한국여성의 전화
2. 환경II		곁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녹색교통운동, 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본부, 녹색소비자연대, 부천YMCA, 불교환경교육원
3. 인권I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식인연대, 민가협, 부산참여자치시 민연합,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민주시민회, 의보통합연 대회의,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4. 환경III	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인천산업사회보건연구회, 춘천경실련, 부산경실련
5. 소비자 운동I	한국여성단체연합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한국YMCA전국연맹, 노동인권회관
6. 종합I	참여연대, 경실련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광주전남 환경운동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7. 인권II		장기수가족후원회, 인도주의실천 의사협회,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불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 현사제단
8. 인권III	전국연합, 민예총, 민변, 민주노총, 민교협	한국인권협, 참교육시민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총
9. 환경IV		수원경실련,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대전환경운동연합, 부천 연합,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생명가치 를 찾는 민초들의모임
10. 부산지역		부산장애인 총연합회, 낙동강보존회, 부산YWCA, 참여자치 대전시민회의, 부산환경운동연합
11. 여성		대한어머니회, 서울YWCA,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가톨 릭여성연합회
12. 소비자 운동II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여성민우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우리농촌살리기 운동전국본부, 생활협동중앙회,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13. 개별활동		또하나의 문화, 가정법률상담소, 낙태반대운동연합, 전국장 애인단체총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대한간호협회, 국제 엠네스티한국지부, 바른언론을 위한 시민연합, 한국여성정치 연구소, 원주민주청년회, 홍사단, 한국유권자운동연합, 한국 부인회,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 교통문화운동본부

(주) 중심단체는 전체 90개 운동조직중 타조직으로부터의 연대의 대상이 된 번호, 즉 수신중심성이 높은 조직들을 의미한다.

각 블록에 속해 있는 조직들은 타조직과의 연대활동에서 비교적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블록8에 속한 조직들은 타블록에 속한 조직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유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특히 <전국연합>과 <민예총>, <민변>, <민주노총>, <민교협> 등은 운동조직들간의 연대활동에서 보면 유사한 역할을 하는 조직들임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한국인권협회>나 <참교육시민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총> 등도 비교적 유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조직들과 전자의 조직들간의 중요한 차이는 전자의 조직들이 보다 두드러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2) 블록내와 블록간 연대의 밀도

<표 6>에서는 블록내, 혹은 블록간 연대활동의 밀도를 보여준다. 대각선상에 위치한 것은 각 블록들 내의 연대활동의 밀도이고, 그 밖에 있는 것은 블록 i로부터 블록 j로 요청하여 실현된 연대활동의 밀도를 의미한다. 이 때 밀도(density)는 특정

<표 6> 구조적 등위성에 기반한 13개 블록간 연대활동의 밀도 매트릭스

수신블록 발신블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0.20	0.10	0.00	0.00	0.09	0.0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	0.10	0.11	0.00	0.03	0.20	0.28	0.00	0.02	0.02	0.00	0.00	0.00	0.00
3	0.00	0.00	0.00	0.02	0.08	0.25	0.08	0.18	0.00	0.05	0.00	0.00	0.00
4	0.00	0.00	0.02	0.03	0.03	0.08	0.00	0.13	0.00	0.07	0.00	0.08	0.00
5	0.00	0.00	0.03	0.00	0.00	0.1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6	0.00	0.03	0.00	0.00	0.00	0.03	0.03	0.09	0.00	0.00	0.00	0.00	0.00
7	0.05	0.00	0.08	0.00	0.07	0.00	0.06	0.15	0.00	0.00	0.00	0.00	0.00
8	0.02	0.00	0.00	0.00	0.07	0.04	0.06	0.17	0.00	0.00	0.03	0.04	0.00
9	0.02	0.02	0.00	0.00	0.00	0.00	0.00	0.00	0.02	0.03	0.00	0.00	0.00
10	0.00	0.00	0.05	0.03	0.00	0.00	0.00	0.00	0.00	0.12	0.00	0.00	0.00
11	0.00	0.00	0.00	0.00	0.20	0.00	0.00	0.00	0.07	0.00	0.00	0.00	0.00
12	0.00	0.03	0.00	0.0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11	0.00
1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주) 블록의 번호는 <표 5>의 블록번호와 일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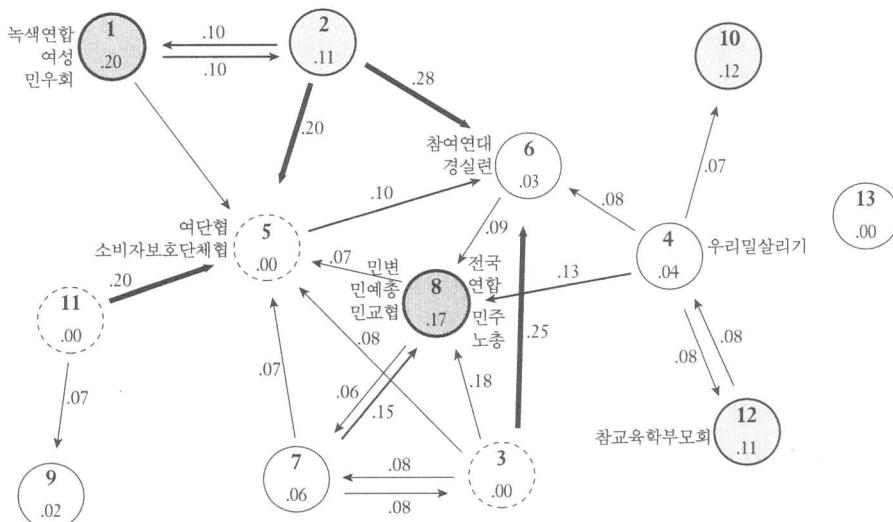
사회연결망을 구성하는 개별조직들이 얼마나 촘촘하게(densely) 혹은 성기게(sparsely)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측정한 것으로서 (실현한 관계의 수/최대 가능한 관계의 수)로 정의할 수 있다. <표 2>에서 보면 블록내 연대의 밀도가 가장 높은 것은 블록 1로서 .20에 해당한다. 달리 말하면 블록 1을 구성하는 모두 7개의 운동조직들간에 가능한 연대의 수는 모두 $7 \times (7 - 1)$ 로서 42개인데, 실제로는 10개의 연대관계가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밀도는 $10/42 = .20$ 인 것이다. 블록간 연대의 밀도가 가장 높은 것은 블록 2 → 블록 6으로서 .28이다. 블록 2에 속한 조직이 모두 6개이고, 블록 6에 속한 조직이 모두 6개이므로 블록 2의 조직들이 모두 블록 6의 조직들을 연대활동의 대상으로 선택한다면 모두 36개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10개의 관계가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밀도는 $10/36 = .28$ 이 된다.

3) 중심적 운동 블록의 판별

<표 6>을 살펴보면 대각선을 기준으로 하여 양쪽 삼각형이 대칭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대활동이 호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예를 들어 본 블록 2 → 블록 6으로의 연대활동, 즉 블록 2의 조직들이 블록 6의 조직들에게 요청하여 성사된 연대활동의 밀도가 .28에 달했지만, 블록 6에서 블록 2로 요청하여 이루어진 연대활동의 밀도는 .03으로 단 1회의 연대활동만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연대활동의 방향이 비대칭적인 경우 타운동조직으로부터 연대활동의 요청을 많이 받는 조직일수록 전체 사회운동영역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중심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스타(star) 조직이란 타 블록으로부터의 연대요청이 많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연대활동의 네트워크에서 괴선택의 빈도가 높은 고위신(prestigious) 조직을 수신중심성(受信中心性, in-degree centrality)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수신중심성이 높은 조직은 조직간 연대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전체 90개의 사회운동조직 중에서 가장 높은 수신중심성을 보인 단체는 <민주노총>(14점), <경실련>(14점), <참여연대>(13점), <한국여성단체연합>(11점), <전국연합>(8점), <민변>(8점), <민교협>(5점), <녹색연합>(5점), <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5점), <한국여성민우회>(5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의>(5점), <민예총>(5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5점) 등이었다. <표 5>에서는 이들을 중심조직으로 따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4) 전체 연대네트워크의 양상

이상에서 언급한 블록 모델링과 블록내와 블록간 연대의 밀도, 그리고 개별조직의 수신중심성 등을 종합하여 요약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림 2>이다. 이 그림에서 블록간 연대의 밀도가 .05 이상인 것들만을 가는 화살표로 표시하였고, 블록간 연대의 밀도가 .10 이상인 경우는 조금 굵은 화살표로, 그리고 .20 이상인 경우는 아주 굵은 화살표로 표시하였다. 또한 블록내 연대의 밀도가 .10 이상인 경우는 굵은 원으로 표시하여 차별화하였다. 이 그림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운동단체들은 크게 13개의 블록으로 나뉘며, 각각의 블록들은 각각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중심적인 블록으로는 5, 6, 8번 블록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타단체로부터 연대의 요청을 많이 받는 조직들이다. 이 그림에서 드러난 주요 블록들을 특징적으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 서술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2> 블록모델링을 통해 본 사회운동단체간의 연대의 양상(인적·물적 교류)

(주) 원 내의 큰 숫자는 블록의 번호, 원 내의 작은 숫자는 블록 내 조직간 연대의 밀도를, 화살표 옆의 작은 숫자는 블록간 연대의 밀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굵은 원과 화살표는 각각 블록 내와 블록간 연대의 밀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운동조직명은 각 블록내에서 중심성이 높은 운동조직을 표시한 것이다.

첫째, 중심적인 블록들 중에도 <블록 5>는 <여성단체협의회>와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한국YMCA전국연맹>, <노동인권회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성격으로 보면 여성운동과 종교적인 사회참여운동, 소비자보호운동 등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1, 2, 3, 7, 8, 11번 블록으로부터 연대활동의 대상이 되었으며, 특히 2번의 환경운동블록과 11번의 교육운동조직들로부터의 연대는 높은 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성향의 운동조직들로부터 광범위한 연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연대의 포괄범위가 넓으면서도 동시에 높은 중심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여단협>과 <소비자보호단체협>의 중심적 활동이 두드러진다. 반면에 5번 블록에 속한 조직들은 블록내 연대의 밀도는 0이라는 점에서 내부 응집력은 없지만 단지 역할상 동질적 위치를 점하는 명목적인 블록이다.

둘째, <참여연대>나 <경실련>으로 대표되는 블록 6은 블록 2, 3, 4, 5에 속한 조직들로부터 연대활동의 요청을 받고 있다. 연대요청을 한 조직들이 환경운동, 지역운동, 민권운동, 여성노동운동, 소비자운동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조직들임을 고려할 때, 블록 6도 블록 5에 못지 않은 포괄성을 지니며, 특히 2번과 3번 블록으로부터는 매우 밀도가 높은 연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5번 블록도 2번 블록과 마찬가지로 블록내 밀도는 .03에 불과해 역시 내부응집력이 약한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간에 내부밀도가 낮다는 것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참여연대>와 <경실련>이 협력보다는 경쟁적 관계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두 조직이 구조적 등위성이 높을 수록 유사한 환경에서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경쟁상태에 놓이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로 주목할 것은 8번 블록이다. 민변, 민예총, 민교협, 전국연합, 민주노총 등을 포괄하는 이 집단은 블록내 연대의 밀도가 .17로 비교적 내부 응집성이 높으며. 동시에 3, 4, 6, 7 블록에 속한 조직들로부터 연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주된 연대의 기반은 노동운동조직, 환경운동조직, 개혁지향형의 종합적 시민운동조직, 인권운동조직 등이다.

넷째로 구별이 되는 것은 블록 10과 12로서 타 조직과는 최소한의 연대를 유지해, 블록내 조직들간의 연대가 비교적 활발한 유형이다. 블록 10은 주로 부산지역의 사회운동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부산지역 내 운

〈표 7〉 사회운동조직 유형별 정관에 명시된 목적의 분포

여성운동조직		환경운동조직		인권운동조직		복지운동조직		구사회운동조직	
목적	(%)	목적	(%)	목적	(%)	목적	(%)	목적	(%)
여권신장	80	환경보전	92	인권보호	94	합리적대안	86	합리적대안	88
합리적대안	45	합리적대안	54	합리적대안	53	의식개혁	64	민중권익	69
인권보호	45	의식개혁	31	민중권익	47	환경보전	55	인권보호	63
의식개혁	35	소비자보호	23	민족통일	41	인권보호	50	기타	44
기타	35	민중권익	15	의식개혁	35	소비자보호	45	환경보전	38
소비자보호	35	도덕성	15	여권신장	29	민중권익	41	민족통일	38
도덕성	35	여권신장	8	도덕성	29	민족통일	41	의식개혁	31
민족통일	30			환경보전	24	기타	41	여권신장	13
환경보전	25			장애복지	12	장애복지	41	소비자보호	13
민중권익	20			기타	6	도덕성	36	장애복지	13
장애복지	15			소비자보호	6	여권신장	14		

동조직들간에 비교적 높은 밀도의 연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블록 12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여성민우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생활협동중앙회〉 등 소비자운동단체들이 포진해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비교적 높은 밀도의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독특한 것은 13번 블록에 속한 조직들로 이들은 블록내, 혹은 블록간에 전혀 가시적인 연대활동을 나타내지 않는 독자적 활동조직들이다.

이상의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그림 2〉에 드러난 양상을 현재 한국의 사회운동에서 나타나는 연대활동을 중심으로 해석한다면 다음과 같다. 각각의 블록은 운동조직의 유형에 따라 동질적인 유형의 조직들이 모이는 유유상종의 경향(homophily)을 나타내고 있지만, 상당한 정도는 유형들간의 교차연대활동도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운동세계에서 중심적인 유형으로는 크게 3가지를 나눌 수 있을텐데, 필자는 이를 1) 여성중심의 소비자운동조직(블록 5), 2) 사회개혁지향의 종합운동조직(블록 6), 3) 민주화운동에 기반한 인권조직(블록 8)으로 대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각각의 유형을 대표하는 것은 여단협, 참여연대, 전국연합 등이다.

이처럼 다양한 운동조직간의 상호교차연대활동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사회운동조직들이 단일목적이 아닌 복수의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상 중

첩된 영역이 크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다음의 <표 7>에서도 잘 드러난다. 각 조직별로 스스로 정관에 명시된 목적을 분류한 결과, 모든 조직유형에서 일차적인 목적으로는 각각의 조직의 전문성에 맞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이슈들에 대해 동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운동조직간 연대의 결정요인: 관계쌍 분석

사회운동조직간의 연대는 각 조직들간의 관계쌍(dyad)으로 구성된다. 관계쌍이란 전체 사회운동조직들간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이자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쌍 중에 일정부분에서는 실제로 한 방향으로의 연대활동이 이루어지고, 다른 관계쌍들에서는 연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모두 90개의 운동조직들간에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연대의 수는 $(90) \times (90 - 1) = 8,010$ 개이다. 그 중에 실제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연대가 이루어진 것은 포괄적 연대인 경우에는 338개의 관계쌍이 발견되어 전체 가능한 연대의 4.2%를 점하며, 강한 연대의 경우에는 모두 178개 관계쌍이 전체의 2.2%에 달한다(<표 8> 참조).

한편, 각각의 실현된 연대 중에서 두 조직이 서로 상대를 연대상대라고 지적한 사례는 포괄적 연대의 경우에는 102개, 강한 연대에서는 36개로서 전체 연대의 관계쌍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0.2%와 20.2%에 해당한다.

호혜적 연대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자원동원과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중심적 조직과 그렇지 못한 주변적 조직간에 정보나 협력의 흐름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보교류의 차원에서는 중심조직과 주변조직간의 협

<표 8> 운동조직간 연대활동 관계쌍의 분포

		포괄적 연대	강한 연대
전체 가능한 연대의 수	(A)	8010	8010
맺어진 관계의 수	(B)	338	178
호혜적 관계의 수	(C)	102	36
연대의 밀도(%)	(B/A)	4.2	2.2
호혜적 연대의 밀도(%)	(C/B)	30.2	20.2

〈표 9〉 사회운동조직의 수준별 및 연대의 형태별 교차분석

포괄적 연대				강한 연대			
조직수준	연합/협의체	단독조직	합계	조직수준	연합/협의체	단독조직	합계
연합/협의체	41 47.67	45 52.33	86 100.00	연합/협의체	24 53.33	21 46.67	45 100.00
단독조직	106 42.06	46 57.94	252 100.00	단독조직	56 42.11	77 57.89	133 100.00
합계	147 43.49	191 56.51	338 100.00	합계	80 44.94	98 55.06	178 100.00

Pearson $\chi^2(1) = 0.8214$ p = 0.365Pearson $\chi^2(1) = 1.7131$ p = 0.191

력이 비교적 호혜적이고 평등한 방향으로 이루어지지만, 인적, 물적교류에 국한된 강한 연대활동에서는 중심적 운동조직들은 주변조직으로부터의 연대제의로부터 상당히 선택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에서 포괄적 연대를 조직의 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협의체나 연합체들이 자체내에서 연대파트너를 선택한 비율은 47.7%이며, 단일조직들이 자체내에서 연대파트너를 선택한 비율은 57.9%로서 그 차이는 확대되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chi^2 = .802$, p = .365). 강한 연대에서도 협의체나 연합체의 성격을 가지는 조직들이 자신과 동일한 수준의 조직을 연대활동의 대상으로 택한 비율은 53.3%이며, 단일조직이 단일조직을 연대의 파트너로 선택한 비율은 57.8%로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chi^2 = 1.712$, p = .191).

포괄적 연대를 조직간 활동영역에서 보면, 각 영역별 자체내 선택, 즉 유유상종의 비율은 여성운동(51.9%), 인권운동(51.4%), 복지운동(37.0%), 환경운동(31.1%), 구사회운동(23.2%)의 순으로서 여성운동과 인권운동의 경우에 유유상종의 경향이 가장 강하다(〈표 10〉 참조). 반면에 구사회운동에서 복지운동으로(23.1%), 복지운동에서 구사회운동으로(27.4%)는 비교적 높은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양 영역간의 연대가 가장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한 연대관계를 조직간 활동영역에서 보아도, 각 영역별 자체내 선택, 즉 유유상종의 비율은 여성운동(52.3%), 인권운동(48.5%), 복지운동(34.1%), 환경운동(33.3%), 구사회운동

〈표 10〉 사회운동조직의 영역별 및 연대형태별 교차분석

운동영역	포괄적 연대						합계
	여성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	복지운동	구사회운동		
여성운동	27	2	3	8	12	52	
	51.92	3.85	5.77	15.38	23.08	100.00	
환경운동	18	23	3	18	12	74	
	24.32	31.08	4.05	24.32	16.22	100.00	
인권운동	4	1	36	12	17	70	
	5.71	1.43	51.43	17.14	24.29	100.00	
복지운동	12	8	6	27	20	73	
	16.44	10.96	8.22	36.99	27.40	100.00	
구사회	12	2	14	25	16	69	
	17.39	2.90	20.29	36.23	23.19	100.00	
합계	73	36	62	90	77	338	
	21.60	10.65	18.34	26.63	22.78	100.00	

Pearson $\chi^2(16) = 143.9738$ p = 0.000

운동영역	강한 연대						합계
	여성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	복지운동	구사회운동		
여성운동	10	0	1	4	4	19	
	52.63	0.00	5.26	21.05	21.05	100.00	
환경운동	9	14	2	12	5	42	
	21.43	33.33	4.76	28.57	11.90	100.00	
인권운동	2	0	16	6	9	33	
	6.06	0.00	48.48	18.18	27.27	100.00	
복지운동	7	6	2	15	14	44	
	15.91	13.64	4.55	34.09	31.82	100.00	
구사회	7	1	5	14	13	40	
	17.50	2.50	12.50	35.00	32.50	100.00	
합계	35	21	26	51	45	178	
	19.66	11.80	14.61	28.65	25.28	100.00	

Pearson $\chi^2(16) = 80.2004$ p = 0.000

〈표 11〉 사회운동조직의 지역별 및 연대형태별 교차분석

활동지역	포괄적 연대				합계
	전국	중앙	지방광역	기초지역	
전국	164	52	2	3	221
	74.21	23.53	0.90	1.36	100.00
중앙	46	11	0	1	58
	79.31	18.97	0.00	1.72	100.00
지방광역	17	2	12	3	34
	50.00	5.88	35.29	8.82	100.00
기초지역	16	4	3	2	25
	64.00	16.00	12.00	8.00	100.00
합계	243	69	17	9	338
	71.89	20.41	5.03	2.66	100.00

Pearson $\chi^2(9) = 91.8101$ p = 0.000

활동지역	강한 연대				합계
	전국	중앙	지방광역	기초지역	
전국	80	25	0	2	107
	74.77	23.36	0.00	1.87	100.00
중앙	25	8	0	0	33
	75.76	24.24	0.00	0.00	100.00
지방광역	10	2	10	2	24
	41.67	8.33	41.67	8.33	100.00
기초지역	7	2	3	2	14
	50.00	14.29	21.43	14.29	100.00
합계	122	37	13	6	178
	68.54	20.79	7.30	3.37	100.00

Pearson $\chi^2(9) = 68.0770$ p = 0.000

(32.5%)의 순으로서 여성운동의 경우에 융유상종의 경향이 가장 강하다. 포괄적 연대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사회운동에서 복지운동으로(35.0%), 복지운동에서 구 사회운동으로(31.8%)는 비교적 높은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두 영역간의 연대

가 가장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직의 활동지역별로 보면, 포괄적 연대에서 유유상종의 경향은 전국포괄 지역(74.2%), 서울 제외한 광역지역(35.3%), 서울지역(18.9%), 기초지역(8.0%)의 순으로 매우 낮게 나타난 반면, 서울을 제외한 광역지역 조직들중의 79.3%, 서울지역조직들의 50%, 그리고 기초지역 조직들의 64%는 연대활동의 대상으로 전국포괄조직을 선택하여 전국을 포괄하는 조직이 조직간연대의 파트너로서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한 연대활동에서도 전국포괄지역의 압도적 지위는 동일하게 확인된다. 전국단위 조직의 74.2%, 서울기반 조직의 75%, 지방 광역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의 41.7%, 그리고 기초지역기반 조직의 50.0%가 전국 단위조직을 연대의 파트너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표 11〉 참조).

전체 90개의 운동조직들간의 연대활동은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므로, 연대활동의 발신조직을 i라 하고 수신조직을 j라 하면 모두 8,010개의 방향성을 가진 관계쌍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연대관계가 성립한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

〈표 12〉 운동조직간 연대를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로짓분석: 관계쌍(dyad)의 분석

	포괄적 연대				강한 연대			
	I		II		I		II	
	계수	p> z						
동일수준여부	.070	0.614	.176	0.219	.069	0.712	.255	0.188
동일영역여부	.956	0.000	.955	0.000	.906	0.000	.884	0.000
동일지역여부	.804	0.000	.817	0.000	.767	0.000	.782	0.000
i의 설립연도-j의 설립연도	-.003	0.352	.009	0.024	-.007	0.160	.010	0.063
i의 상근자수-j의 상근자수	-.006	0.030	.003	0.382	-.010	0.011	.003	0.533
i의 회원수-j의 회원수(천명)	-.0001	0.191	-.00002	0.827	-.0003	0.065	-.000	0.415
i의 중심성-j의 중심성			-.156	0.000			-.199	0.000
상수항	-3.829	0.000	-4.070	0.000	-4.444	0.000	-4.861	0.000
사례수	5700		5700		5700		5700	
χ^2	88.94		180.53		50.75		141.09	
Prob > χ^2	0.0000		0.0000		0.0000		0.0000	
Pseudo R ²	0.0451		0.0916		0.0412		0.1145	
Log Likelihood	-941.23		-895.43		-590.85		-545.69	

으므로 과연 어떤 요인들이 운동조직들간의 연대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체 관계쌍 중에서 실제로 연대가 이루어진 경우를 1로, 그리고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0으로 하는 로짓분석을 하면 될 것이다. <표 12>는 로짓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전체 잠재적 관계쌍 중에 조직의 회원수 등에서 보고되지 않은 것들을 제외하고 모두 5,700개의 관계쌍의 사례들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이 분석에 활용된 독립변수들은 발신조직과 수신조직의 속성들의 일치와 차이여부를 척도화한 것들이다. 동일수준여부는 두 조직이 모두 연합체나 협의회인 경우, 혹은 두 조직이 모두 단일운동조직인 경우에 1의 값을, 그리고 두 조직이 상이한 조직수준을 갖는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 가변수로 활용되었다. 동일영역여부는 두 조직의 분류가 여성, 환경, 사회복지, 인권, 구사회운동 등의 영역에 함께 속하는 경우에 1,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0의 값을 가지는 가변수로 처리되었다. 동일지역 여부도 두 조직의 활동영역이 전국, 중앙, 광역지역, 기초지역의 4 분류 중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경우에 1, 그렇지 못한 경우에 0의 값을 가지는 가변수로 처리되었다.

한편, 두 조직의 연대활동의 방향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발신조직과 수신조직의 설립연도의 차이는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신생조직이 오랜 역사를 가지는 조직에 연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음의 값을 반대를 의미한다. 같은 방식으로 두 조직간의 상근자수의 차이, 회원수의 차이, 그리고 두 조직의 중심성의 차이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흥미로운 사실들을 보여준다. 첫째, 포괄적 연대를 결정하는 요인과 강한 연대를 결정하는 요인들 사이에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먼저 유유상종(homophily)의 효과를 보기 위해 도입한 변수들의 효과에서는, 조직수준의 동질성은 연대활동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에, 동일 영역에 속한 조직들끼리, 그리고 동일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들끼리 연대활동이 성사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최근에 설립된 조직일수록 이전에 설립된 조직과 연대활동을 하는데서 강한 연대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이전에 설립된 조직은 최근에 설립된 조직과 정보교환수준의 연대활동에서 더 적극적이어서 대비를 이룬다. 이는 민주화가 진행된 이후에 설립된 조직들이 실질적인 연대활동에서 보다 적극적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두 상이한 조직간

의 연대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상근자수로 대표되는 조직의 과업수행능력이다. 이는 조직의 회원수로 측정한 조직규모의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과 대비된다. 즉, 회원의 수 보다는 조직의 상근자 수가 훨씬 조직의 역량을 잘 반영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간 연대는 상근자 수가 적은 조직에서 상근자 수가 많은 조직으로 요청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근자수의 효과는 조직의 중심성(여기서는 수신중심성)을 통제한 결과 사라진다. 앞에서 이미 분석한대로 조직의 중심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상근자의 수였다는 것을 상기할 때(<표 4>를 참조), 조직간 연대에서도 상근자수로 대표되는 조직의 과업수행역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다면, 조직간 연대는 유사한 이슈를 다루는 조직들 간에, 그리고 동일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들간에 활발히 일어나며, 조직간 연대의 방향은 조직의 과업수행능력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민주화의 진행 이후에 출범한 조직들이 조직간 연대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것이다. 따라서 조직의 활동영역과 지역에서는 유유상종의 경향이, 그리고 조직의 과업수행능력간에는 교차연대의 경향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5. 외부환경과의 연결망

1) 소속행렬의 분석

사회운동조직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원을 동원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로로 정부나 지방정부, 언론, 기업, 정당, 외국기관 등을 활용한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90개 사회운동조직들이 연대활동을 벌인 사회적 환경에 속한 조직들은 모두 181개에 달하였다. 이들의 응답은 90개의 행(i)과 181개의 열(j)을 가진 소속행렬(affiliation matrix)로 표시가 가능하다. 이때 $x_{ij} = 1$ 이라는 것은 i번째의 사회운동조직이 j번째의 환경조직을 연대의 대상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x_{ij} = 0$ 이라는 것은 두 조직간의 연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X를 $i \times j$ 의 행렬이라 하면, X는 $j \times i$ 의 행렬이 된다. 이 때, $X^i = XX'$ 로, $X_i = X'X$ 로 계산이 가능하다. 여기서 X_i 는 90개 사회운동조직간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행렬

로, X_i 는 181개의 사회적 환경조직들간의 유사성의 행렬로 이해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Breiger, 1974를 참조) 이 연구에서는 181개의 사회적 환경조직들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음의 〈표 13〉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모두 27개의 분류로 바꾸었다. 그러므로 j 는 181개가 아니라 27개의 조직범주들이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모두 90 개의 조직에서 각 조직범주 쪽으로 요청된 연대활동의 밀도를 계산한 후, 평균밀도 (.03)보다 높은 값을 가지는 경우에 1의 값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 0의 값을 주어 90×27 의 행렬로 전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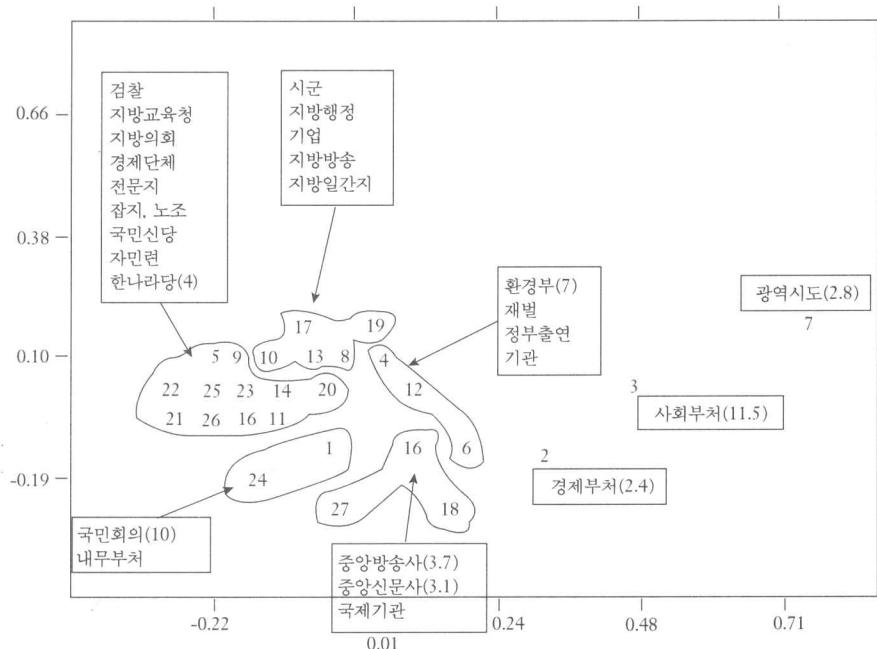
2) 어떤 범주들이 사회운동조직에 중요한 환경으로 기능하는가?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에 속한 조직들을 27개의 범주로 통합하여, 각 범주에 대해 사회운동조직들이 연대한 관계의 빈도, 다시 말하면 환경에 속한 조직군들의 평균적인 연대수신빈도(in-degree ties)를 계산한 결과는 다음의 〈표 13〉과 같다. 이 표는 환경에 속한 조직들이 얼마나 사회운동조직들로부터 신뢰와 협조의 대상이 되느냐를 나타내준다는 점에서 일종의 위신(prestige)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사회운동조직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공보처, 문화관광부 등과 같은 사회문화분야의 정부부처들로서 총 11.5회의 연대수신밀도를 보여준다. 달리 말하면, 총 90개 사회운동조직 중 평균 11.5개의 운동조직들이 이를 부처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강력한 영

〈표 13〉 사회적 환경에 있는 조직이 사회운동조직으로부터 받은 연대의 평균빈도

사회적 환경범주	밀도	사회적 환경범주	밀도	사회적 환경범주	밀도
사회문화부처	11.50	정치외교부처	1.60	사법검찰경찰	1.00
국민회의	10.00	기타지방행정	1.33	지방교육행정	1.00
환경부	7.00	정부출연기관	1.27	지방의회	1.00
한나라당	4.00	경제단체	1.25	일반기업	1.00
중앙방송사	3.75	잡지사	1.25	은행	1.00
중앙신문사	3.11	노동조합	1.25	전문신문사	1.00
광역시도청	2.80	지방방송사	1.20	국민신당	1.00
경제부처	2.44	채널	1.18	자민련	1.00
지방신문사	1.83	국제기관	1.02	시구군청	0.88



〈그림 3〉 사회운동조직의 환경: 다차원 축척

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회의(11회)로서 한나라당(4회), 국민신당(1회), 자민련(1회) 등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 정부부처에서는 환경부가 7회로서 여타 정부부처의 범주들이 다수의 부처들을 포함한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단일부처로서 압도적으로 높은 지위를 점한다. 이상의 정당과 정부부처를 제외하면, 중앙의 방송사들(KBS, MBC, SBS)과 중앙의 일간신문사들이 높은 지위를 점하고 있어서(각각 3.75점과 3.11점), 여타 단체나 기업, 그리고 국제기관들에 비해 사회운동조직에게는 유의미한 환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X_i의 행렬을 토대로 27개 사회환경조직 범주들간의 상대적 차이를 유클리디안 거리(Euclidian distance)로 계산한 후, 이를 다차원축척(multi-dimensional scaling)으로 표시한 것이 〈그림 3〉이다. 이 그림에서 선으로 둘러싸인 안에 있는 범주들은 집락분석(cluster analysis)의 결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단체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그림을 해석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일한 범주로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 사회관련부처, 경제관련부처 등이다. 이들의 역할은 각기 상이한 독특성을 지닌다. 둘째, 중앙의 방송사나 신문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동시

에 이들의 역할은 매우 유사하다. 셋째, 국민회의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내무관련 부처와 유사한 역할을 해 왔다. 동시에 국민회의는 정부부처보다 오히려 더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조사가 1998년 1월 중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미 김대중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 야당으로서의 국민회의는 사회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에서는 단연 독특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넷째, 한나라당은 국민회의와는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경제단체, 검찰, 교육청, 전문지, 기타 정당 등과 유사하지만, 그 중에서는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음을 보여준다. 넷째로 기초자치단체, 지방행정관련기관, 기업, 지방방송, 지방의 일간지 등은 모두 지방에 근거한 사회운동조직들의 환경으로서 유사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들은 분산되어 있고, 주도적 역할을 하는 조직을 갖지 못하고 있다.

〈표 14〉 사회운동조직과 환경과의 친화성

운동조직 \ 환경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언론	정당
여성	2.74	3.06	2.67	3.44	2.79
환경	2.39	2.92	2.39	3.46	2.85
인권	2.59	2.73	2.00	3.12	2.56
복지	2.27	2.86	2.31	3.27	2.68
구사회	2.06	2.67	2.13	3.43	2.88
전체평균	2.41	2.86	2.31	3.34	2.74

〈표 15〉 환경과의 친화력과 접촉빈도간의 상관관계

사회적 환경	상관관계
중앙정부	0.206
지방자치단체	0.269*
기업	0.162
언론	0.126
정당	0.283*

*: p < .05

3) 사회운동조직과 외부환경과의 친화력

사회운동조직과 환경조직들과의 친화력을 살펴기 위해 5점의 척도를 구성하였다. 평균을 3으로 하고 3 이상이면 친화적 관계를, 그 이하면 갈등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사회운동조직들은 언론을 제외한 대부분의 환경조직들과 갈등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운동조직들은 일반적으로 언론과 가장 높은 친화력(3.34)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2.86), 정당(2.74), 중앙정부(2.41), 기업(2.31)의 순이었다.

운동조직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여성운동의 경우에는 언론과 지방자치단체와 친화력을 유지한 반면, 중앙정부나 기업, 정당 등과는 갈등적 관계가 많았다. 환경운동단체들은 언론과 가장 친화력이 높은 반면 중앙정부나 기업과 갈등관계에 놓여 있었다. 특히 인권운동조직은 기업과 가장 갈등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구사회운동단체들은 중앙정부와 가장 갈등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한편 환경과의 친화력과 환경과의 연대활동의 빈도는 사회적 환경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사회운동조직들중 정당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접촉이 많은 조직들은 정당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친화력을 강하게 느낀다. 반면에 중앙정부, 기업, 언론등과는 접촉의 빈도와 친화력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달리 말하면, 정당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는 이념적인 동조나 친화력등이 발휘되지만, 중앙정부나 기업, 언론등과의 연대활동은 이념적 친화력보다는 도구적 관계에 치중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기업과의 관계에서 관계의 도구성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6.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신사회운동의 한국적 특성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신사회운동의 특징으로 평가되는 연결망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사회운동단체들은 시기별로는 1987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생겨났다. 사회운동조직들 중 타조직과의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조직은 브로커의 역할로

보면 포괄적 연대활동에서는 <참여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등의 순이었던 반면 강한 연대활동에서는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연합> 등의 순이었다. 이는 <참여연대>는 상대적으로 정보교환의 측면에서, 그리고 <민주노총>은 인적, 물적 교류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 왔음을 보여준다. 사회운동조직의 중심성을 결정하는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는 조직의 연령이다. 즉, 최근에 설립된 운동조직들일수록 비교적 역사가 오래된 조직들에 비해 훨씬 높은 중심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시기별 주요 이슈들에 대해 전문화된 문제제기를 하는 사회조직들, 예를 들면 현 상태에서는 노동문제, 환경문제, 사회복지 등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 조직들의 중심성이 높으며, 지역적으로는 중앙에서 활동하는 상근자 규모가 큰 조직에서의 중심성이 높다.

사회운동단체간의 연대의 양상을 블록모델링을 통해 확인한 결과는 다양한 신구 사회운동조직들이 상호 긴밀히 연결된 가운데서도 몇 가지 분절의 양상들이 드러나고 있다. 중심적 역할을 하는 조직군으로 크게 세 개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중심으로하는 종합적 사회운동조직, 두 번째는 <전국연합>과 <민주노총>, <민변>, <민예총>, <민교협>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화운동세력, 그리고 세 번째는 <여단협>과 <소비자보호단체협> 등 여성 및 환경운동조직들이다. 이들 중에서 가장 내적 응집력이 높은 그룹은 두 번째 그룹이며, 반대로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룹은 연결망상의 역할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밀접한 유대가 결여되어 있는 양상이다. 즉, 이들은 유사한 전략을 택하지만 상호 경쟁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사회운동조직간의 연대활동은 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다양한 자원과 능력을 갖춘 상당히 이질적인 집단들간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보교류의 수준에서는 비교적 호혜적인 연대가 강하지만, 인적-물적교류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이 훨씬 강해진다. 즉, 중심적인 조직들은 주변 조직의 연대제의에 대해 매우 선택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사회운동조직들간의 연대는 활동영역과 지역에서는 유유상종의 경향이, 그리고 조직의 과업수행능력에서는 교차연대의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운동조직은 운동조직들간의 관계뿐 아니라 환경으로서의 정부기관, 정당, 언론기관 등 외부기관들과도 관계를 지니고 있다. 정부부처중에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공보처, 문화체육부 등이 주된 연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정당에서는 국민

회의가, 그리고 중앙의 방송과 신문이 중요한 환경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과의 관계에서 특히 언론은 사회운동조직과 가장 높은 친화력을 발휘해 온 반면, 중앙정부는 가장 갈등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특히 구사회운동과 중앙정부와의 대립이 두드러진다. 사회운동조직은 정당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는 이념적 동조나 친화력을 발휘하는 반면, 중앙정부나 언론과의 연대활동은 도구적 관계에 치중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의 사회운동단체들은 비교적 다양한 연결망에 의해 상호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연결망은 신-구사회운동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교차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 운동의 접합은 우리사회에서 신사회운동의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사회의 신사회운동은 이념이나 분석적 개념의 수준에서는 탈현대적 이슈나 이념들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는 전통적인 운동네트워크와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같은 뿌리에 기인하면서 이슈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민주화운동으로, 어떤 경우에는 환경운동으로 분화되기도 한다. 조직을 단위로 하면 공식적인 관계인데 반해 개인을 단위로 하면 매우 비공식적인 관계가 조직간 관계의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상근자 중심의 운동이 중심적이라는 사실은 예산확보가 운동조직에게는 관건이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와의 관계가 빈번할수록 프로젝트를 수주 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하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배급하는 통로로서 공보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할 수도 있다.

조직생태학적 함의를 따져본다면, 우리의 신사회운동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조직, 새로운 이슈로 출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구의 이념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에서는 사회운동의 환경자체에 전통적 요소와 탈현대적 요소가 뒤섞여 있음을 암시한다. 달리 말하면 짧은 시간동안에 압축적인 성장을 한 한국사회에서 사회운동의 성격도 상이한 이질적 요소들이 뒤섞여 발전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운동의 환경적 합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일관성이 유지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서구의 신사회운동이 1968년의 학생운동을 깃점으로 하여 문화적 변혁을 추구한 최소한 30년의 역사가 있다면, 한국의 신사회운동은 비교적 최근에 급속히 성장하였으며, 필연적으로 전통적 사회운동과 명백한 분화를 거치지 못한 상태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태환(1997), “신사회운동과 사회지표,” 《한국사회과학》 제19권 제2호.
- 구도완(1995), “한국의 새로운 환경운동,” 《한국사회학》 제29집 여름호.
- 김성국(1997), “신사회운동의 이론적 기반: 시민사회론과 관련하여,” 《한국사회과학》 제19권 제2호.
- 김용직(1997), “구미 신사회운동의 특성: 집합행동론적 시각,” 《한국사회과학》 제19권 제2호.
- 김용학 · 송호근(1997), 《노동조합의 연결망》, 노총중앙연구원.
- 김효정, “사회운동 참여의 동학: 의식화 과정과 사회연결망적 기초에 관하여,” 1997년 전기 사회학대회 발표논문
- 성경룡 · 김호기(1997),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육성방안연구》, 정무장관(제1)실.
- 송호근(1997), “신사회운동의 사회학: 개념, 의의, 쟁점,” 《한국사회과학》 제19권 제2호.
- 시민의 신문(1997), 《한국민간단체총람》.
- 유팔무 · 김호기 엮음(1995),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 이기호(1997), “한국의 민주화과정과 사회운동네트워크: 1987-1996,”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 임현진 · 공석기(1997), “한국사회와 신사회운동: 운동조직 분석,” 《한국사회과학》 제19권 제2호.
- 오일환, “80년대 이후 한국 사회운동과 정치발전,” 한국정치학회 1997년 연례학술대회 발표 논문.
- 정철희(1997), “문화변동과 사회민주화,” 《한국사회학》 제31집 봄호.
- 조대엽(1995), “한국의 사회운동과 조직유형의 변화에 관한 연구: 1987-1994,”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조돈문 편저(1995),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 I: 이론적 이해와 연대의 경험》,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_____(1995),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 II: 연대경험의 분석과 연대발전의 방향》,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조 은(1997), “지구촌화, 세계시민사회 그리고 신사회운동,” 《한국사회과학》 제19권 제2호.
- Breiger, Ronald L. (1974), “The Duality of Persons and Groups,” *Social Forces* 53: 181-90.
- Cohen, Jean L. and Arato, Andrew (1992),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MIT Press.

- Fernandez, Roberto and Roger V. Gould (1994), "A Dilemma of State Power: Brokerage and Influence in the National Health Policy Domai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9(6).
- Gould, Roger V. (1991), "Multiple Networks and Mobilization in the Paris Commune, 1871,"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6.
- _____, (1993), "Collective Action and Network Structur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8.
- Kim, Hyojoung and Peter S. Bearman (1997),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Movement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2.
- McAdam, Doug,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eds. (1996),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Political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Cultural framing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asserman, Stanley and Katherine Faust (1994),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Network Analysis of Solidarity Ties among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Tai-Hwan Kwon* and Jaeyeol Yee**

This paper attempts to locate the New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NSMOs) in Korean context. Traditional belief that NSMOs show intrinsic difference to the Old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OSMOs) lead to the hypothesis that two types of organizations have different ecological background as well as different mode of mobilization. Yet a network analysis of solidarity ties among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based on block modeling and centrality measures, reveals that major difference is found across general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 newness of the organization and capacity to mobilize internal personal power, rather than to the border between Old and New SMOs. Solidarity ties among SMOs are more frequent between central and peripheral organizations. Also government and mass media act as the most crucial environment for all SMOs. The study shows that Korean NSMOs have grown up rapidly in relatively short time, but without clear identity distinguished from the OSMOs.

*Professor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Area: Demography, Environmental Sociology, Urban Sociology

Major Publications: *Demography of Korea*(1997),

The Trends and Patterns of Mortality and Health in the Republic of Korea(1986)

Email: thkwon@prome.snu.ac.kr

**Assistant Professor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Area: Economic Sociology, Organizational Sociology, Social Theory

Major Publication: "Risk Society as a System Failure"(1998)

E-mail: jyee@plaza.snu.ac.kr

〈표 5〉 CONCOR를 이용한 블록모델링의 결과(강한 연대의 밀도분포)

$$-\text{squared} = 0.116$$